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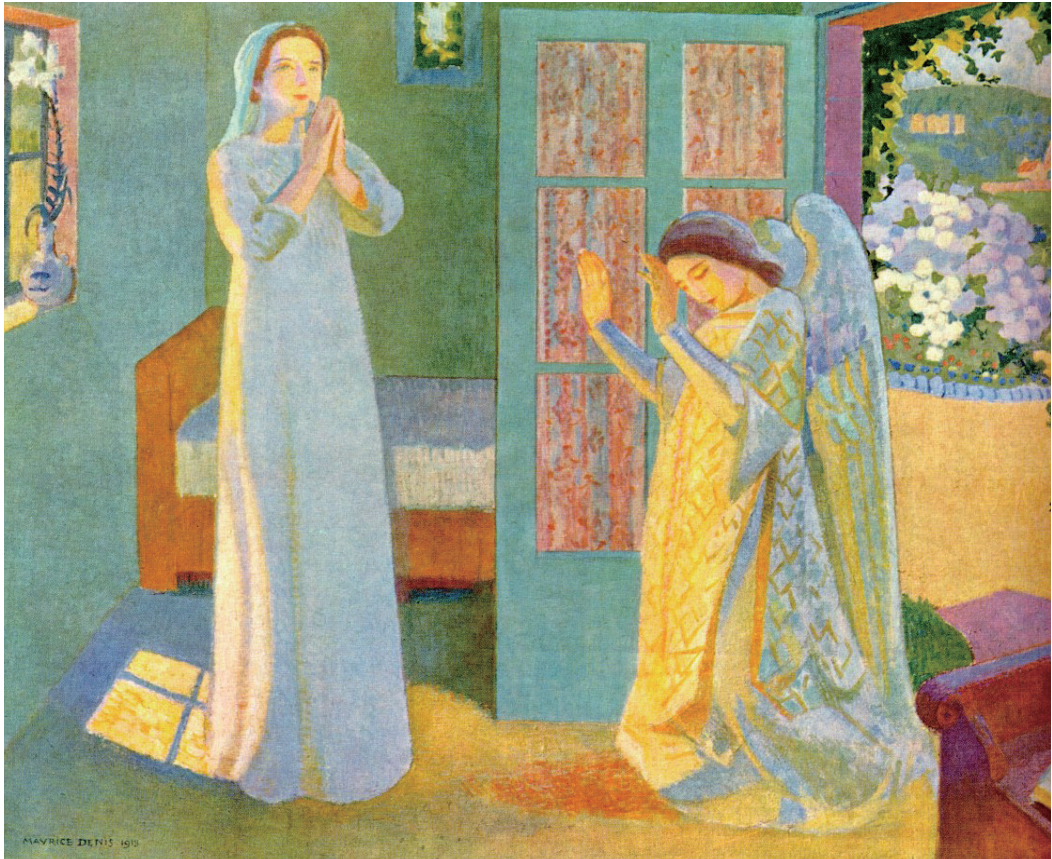


대림 제4주보

대림 제4주일

2020. 12. 20. (나해) 제2246호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1,28)



『수태고지』, 모리스 데니스, 1912,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루카 1,29)



교구 관리국장 | 여운동 바오로 신부

동기신부가 신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1990년대에는 주일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미사 때는 신학생들이 성체분배를 돕고는 했는데 동기신부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체분배를 하기 위해 제의방으로 들어가는데, 성당 마당에서 놀고 있던 한 아이가 뒤따라왔다고 합니다. 제의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는데 성당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도손 하고...” 이 말과 함께 성당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셨어요? 우~와 대박!”이라고 했답니다. 그 아이의 놀란 표정과 동기신부의 멧쩍은 표정을 생각하니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28,31)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라고 성모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루카 1,29)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것,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모님의 기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성모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 4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기도한다면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로마 16,25)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와! 예수님이셨어요?” 하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도손 하고!” 

크리스마스트리

경북대 명예교수 · 만촌2동본당 | 박용구 토마스아퀴나스

해마다 12월이 되면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으로 들썩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찬란한 불빛이 빛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트리가 곳곳에 세워져 성탄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어느 성탄 때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께서 태어난 성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당 앞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만들어지고 잔잔한 캐럴이 울려 퍼져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트리는 16세기 독일 서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독일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집에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는 파라다이스트리를 세우고 성체용 빵을 닮은 얇은 빵과 과자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무토막을 삼각형으로 쌓아 올리고 양초 불을 밝혀 꾸몄습니다. 19세기 미국으로 온 독일 이민자들에 의해 성탄절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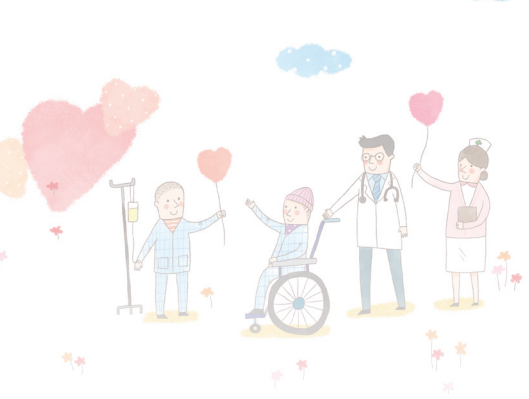
예부터 우리가 만든 교회 건물도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지붕 꼭대기는 뾰족한 탑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끝이 뾰족한 침엽수도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는 삼각추 모양을 닮아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상록 침엽수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크

리스마스트리는 상록수인 독일 전나무나 독일 가문비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크리스마스트리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구상나무입니다.

이 구상나무를 세계 학계에 처음 알리신 분은 현재 대구대교구 성직자모지에 잠들어 계시는 에밀 타게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은 1907년 제주도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채집하여 독일 베를린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로 분류되어 'Abies koreana'란 학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소개된 균형 잡힌 나무모양과 촘촘히 나 있는 부드러운 침엽을 가진 귀티가 나게 우아한 구상나무의 모습은 당장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약 세계적인 크리스마스트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구상나무가 한라산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추운 데서 살아야 하는 구상나무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꼼꼼히 읽고 깊이 반성하며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주변에 멋진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키 큰 구상나무 한그루 세우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어린시절 만나 보았던 아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필문**



치유의 샘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 12,15)

교구 병원사목부 차장 | 이종민 마태오 신부

병원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희귀병의 이름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희귀병을 앓는 환자를 만나보면,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한 20대 청년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청년은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청년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병하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냈으며 통증도 굉장히 심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병도 있었구나.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까?’

청년이 입원해 있는 동안 매주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봉성체를 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도 있었지만, 찾아가갈 때마다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힘든 환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간병하는 어머니와 큰 소리로 함께 웃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데도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편 다행스럽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그 청년을 찾아가 기도와 봉성체를 한 후 다른 환자를 찾아가기 위해 병실을 나설 때였습니다. “신부님”하고 청년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되돌아와 병상 옆에 섰습니다. 그 청년은 병실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티비에 나오는 저 애들은 나와 비슷한 포레들인데... 저렇게 건강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해요?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

셨어요?”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힘든 투병생활 중에도 늘 웃음을 보이던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럽고 한편 가슴이 먹먹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답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해줄 수도 있고, 제 경험의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견뎌낸 훌륭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청년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청년의 손을 붙잡고 가만히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젊음과 건강을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 언제 끝날지 모르는 통증과 고통,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아파해야만 하는 막막함... 이 청년에게 어떻게 답해줄 수 있을까요? 그저 함께 답답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전히 기도 안에서 고통을 견디며 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내가 하느님이라든가 것처럼 시원스러운 답을 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라도 낫게 해 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임을 겸손하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도는 거짓 없는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곧 성탄절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



최필제 베드로 (1770~1801년)

최필제(崔必悌) 베드로는 1770년 한양의 의원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는 1801년에 순교한 최필공 토마스의 사촌 동생으로, 1790년에 그와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본래 진실하고 후덕한 성품을 지녔던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또 그가 파는 약은 값이 싼 데다가 약재도 좋아 모두가 신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촌 최필공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에게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실행에 옮길 정도였다.

천주교에 입교한 뒤 베드로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때 최필공의 동생들 중에서 신자들을 욕하면서 다니는 이가 있었는데, 그도 ‘최필제만은 본받을 만하다’고 칭찬할 정도였다.

1791년의 신해박해 때 베드로도 사촌인 최필공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최필공만큼 신앙이 굳지는 못하여 일찍 박해자들에게 굴복하고 석방되었다. 또 석방된 후에는 거짓으로 최필공의 자백서를 써서 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베드로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교회 일을 돕거나 교리를 전파하는 데 열중하였고, 신입 교우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놓고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하자 그를 찾아가 성사를 받았으며, 자주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러다가 1800년 음력 1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신입 교우들과 모임을 갖던 중에 체포되어 형조의 옥에 갇혔다.

최필제 베드로가 다시 체포되자, 그의 늙은 부친은 놀란 나머지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의 부친은 비신자였는데, 죽을 때는 영세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베드로는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형조에 요청하였다. 이윽고 옥에서 나오게 된 그는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형조로 가서 다시 옥에 갇혔다. 그때 형조의 관리들은 그에게 넌지시 도망할 것을 귀뜸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옥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그는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의 원의를 나타냈다.

“나는 마귀에게 원수를 갚고, 전에 내가 배교했던 일을 보속하려 하네.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 머리를 바치는 것일세.”

베드로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차례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5월 14일(음력 4월 2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2사무 7,1-5.8ㄷ-12,14ㄱ,16	제 2 독 서	로마 16,25-27	복 음	루카 1,26-38.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021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사제·부제 서품식 : 2020년 12월 29일(화) 오후 2시

장소 :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례 :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 서품식은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교우 분들께서는 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관계로 입장권이 없는 교우 분들은 입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요즘 자연장, 특히 수목장(樹木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목장은 해도 되는지요?**

자연장(수목장 포함)은 거룩한 장소인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묻고 추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나 표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참조) 그러나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여겨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골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그 유골의 봉안 기간이 지났다면,
그때에는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산골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도 산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적당한 안치소에 이름을 표기하고 매장하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21일(월) 10:30 범여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1일(월) 11:00 평화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1일(월) 11:00 계산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6일(토) 11:00 한티피정의집

성소 | 피정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성소자 초대

일시: 개인 상담 후 결정

대상: 봉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4142-8184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교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꽃차, 색소폰,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오카리나,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발성법, 가곡성가, 섬유공예, 태극권,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특별 이벤트

2021년을 말씀과 함께

1과목 수강료로 2과목 공부를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마감: 2021.2.10(수)

과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가르멜재사회 지원자 모집

마감: 1월 모임 전 / 대상: 55세 이하

첫째주 일요일팀: (010)3308-1004

첫째주 월요일팀: (010)4525-2467

넷째주 일요일팀: (010)6549-1852

넷째주 월요일팀: (010)3532-7337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구약과 신약): (목) 10:00, 19:30

다시 읽는 구약성경(통독반): (수) 14:30

심화(성문서):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243-0195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KBS2 TV 다큐멘터리 3일』 방영 안내

KBS2TV 다큐멘터리 3일 653회 [어떤 기도- 대구 성모당 72시간]편이

12월 21일(월) 오후 4시 55분에 재방송됩니다. 정규 방송분을 놓치신 교우님들의 많은 시청바랍니다.

대구주보 2021년 상반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 등 기존의 신앙 수기 형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한글 12포인트 A4 1페이지 **기간** | 12월 31일(목)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성요셉요양병원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덕우 아오스딩, 배성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운(미카엘) · 김진선 · 구병영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건강 전문의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혈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정점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훈(대견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정학모(루가) 신부
2015년 12월 20일
- 서정덕(알렉산델) 주교
2001년 12월 22일

행사 | 모임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2021.1.20(수)~22(금)

장소: 농은수련원

고3·대학·일반: 2021.1.27(수)~29(금)

장소: 한티피정의집

(참가 학년은 2021학년도 기준)

새 사제 최승희 하상바로, 이동혁 베드로

만촌2동성당 첫미사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채널 '가톨릭신문' 검색

일시: 12.29(화) 19:30 최승희 하상바로

12.30(수) 19:30 이동혁 베드로

거리두기로 유튜브 생중계로 대신합니다.

송년 감사미사 및 신년 교례회

송년 감사미사: 12.26(토) 14:00~17:30

신년 교례회: 2021.1.2(토) 14:00~17: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문의: (010)9045-0191

대구가곡사랑 모임(2020년 송년음악회)

일시: 12.26(토) 15:00~17:00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

문의: 김남수 그레고리오, (010)2128-4771

교육 | 모집

1월 가나 강좌

일시: 2021.1.10(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별관 대화합실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2.30(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1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2.21(월)~31(목)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전국 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DCU스마트인재장학 전원 장학혜택

접수: 2021.1.7.(목)~11(월)

정원: 2,862명 / 문의: 850-2580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티업오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일시: 12.22(화) 9:3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성모님을 사랑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8503-0228 / (010)8660-5201

모임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배명숙(에밀리아), 이효기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요양원 시설명칭 변경

변경일자: 2020.11.1~

당초 시설명: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변경 시설명: 대구가톨릭요양원

문의: 616-2141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파손 및 버릴 폐기용 성물 접수

성지에서 폐기해드립니다.(1박스 1만원)

주소: 문경읍 새재로 600

(양업명상센터)

후원: 농협 301-0197-7617-13 안동교구

문의: 문경마원성지, (010)9944-0145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일월매트총판 | 온 수 매 트
한 일 의 료 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 좌욕기 | 전 자 제 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자관 1층 239호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공정직영도매(동고령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다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달성피부과
Since 1985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제니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중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호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053)626-8881~5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서울: 02-3141-3888
부산: 051-817-3887